

드림레터 11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30 호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



공동체에서 일의 의미를 배우다

세상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이상이 되지만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공유하면 현실이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대상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와 희생정신으로 가득한 이들만 모인 단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선활동을 시작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구성원 중에는 의료 봉사 활동할 때 입고 있는 조끼가 너무 멋있어서, 혹은 남자친구를 따라서 온 사람도 있고, 이혼이나 실직 후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그저 추운 겨울을 피하고자 봉사를 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거드랑이털을 기른다고 놀리는 상사를 견디지 못해 더 열린 조직을 찾아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의 의미가 중요한 사람들

하지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위급한 현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에볼라 창궐 현장과 빈곤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하려면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보호복을 입고 장화를 신어야 합니다. 장화 속에 땀이 출렁거려 보호복을 한 번 입고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 오래 일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진료 후 보호복을 빨리 벗으려다가 옷에 묻은 환자의 체액 등에 닿아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간 이유에 대해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니까요.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그 아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C국에서 태어난 죄 하나뿐인데
제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은 인도주의자들의 이상적 공동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적인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 : 신창범(2013), 「국경 없는 과짜들」)

진로교육 Tip

함께하는 나눔에서 의미 찾기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구팀

축구팀 A는 연고지인 R시 지역 남성들의 비만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R시 지역 남성들의 수명은 그 나라에서 세 번째로 짧았고 46.3%가 비만이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 남성들에게 건강 검진 및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축구팀 B는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선 단체와 협력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축구 수업도 추가하여 참가자들끼리 팀을 구성해 경기를 치르게 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영화 축제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지원센터 방문, 주민센터 수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축구를 치료 수단으로 삼은 훌륭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출처 : 베스트일레븐, 2018.11.09., b11 CSR 리포트 1st 유럽의 오늘과 내일)

도서관으로 함께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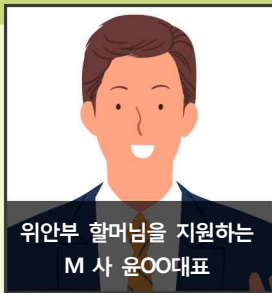
A 식품 회사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꿈의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게임 회사 B도 해외 7곳을 포함하여 118개의 '작은 책방'에 약 10만 권의 책을 비치, 세계 어린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기업은 비엔날레에서 선택한 도서를 블루박스에 넣으면 이를 원하는 이에게 선물해 주는 '인터랙티브 북 셰어링 서비스'로 체험형 전시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2018.10.02., 기업 사회공헌도 차별화 이색 CSR이 뜬다)



금주의 멘토 인터뷰



위안부 할머니를 지원하는
M 사 윤OO대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기업 CEO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기부하여

장학·복지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SNS와 매거진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Q. 처음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처음 뵈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저는 '나눔의 집' 프로젝트에 배치되었어요. 그 때 할머니들을 처음 뵈고 역사관도 가보고 하면서 빛진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Q. M 사의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위안부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그 할머니만이 살아내셨던 인생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치나 특징과 가장 어울리는 꽃을 부여하고 꽃으로 다양한 무늬를 만듭니다. 고객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이나 패션 소품에 무늬를 담고요.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본인의 참여 또는 구매 후기를 주변에 전하면서 확산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Q.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이상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을 알고, 그렇기에 서로가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M사 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희 회사는 편한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 정말 사라져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7.04, '위안부' 할머니가 동반자...M사가 경영하는 법)

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기

우리 사회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돕고 싶나요? 그 이유와 방법을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① 내가 돕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써보아요.

② 무엇을 활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생각해 보아요

WEEKLY NEWS

진로레시피

학부모를 위한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매주 화·목요일** 팟캐스트(iOS)&팟빵
(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최신편 들어보기▶



<톡톡!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lp@naver.com>